

# 최근 미국의 정보전문가 교육의 동향과 한국 사서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

한      순      정\*

## <목 차>

- |                    |                       |
|--------------------|-----------------------|
| I. 정보전문가의 자격       | III. 정보전문가를 위한 교육의 경향 |
| II. 도서관학과 정보학 교과과정 | IV. 결론 및 제언           |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산업시대에서 정보시대로 변천해 가고 있으며, 정보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산업계에서 정보는 상품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정보의 생산, 처리, 분배 및 사용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쏟고 있다. 미국무성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노동인구의 약 50%가 정보산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한 2000년에는 미국 노동인구의 약 80%가 정보산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했는데<sup>1)</sup>, 이것은 정보산업의 중요성을 입증해 주는 좋은 예이다. 과거 25년간 생산된 정보의 양은 전례를 찾아 보지 못할 만큼 급증하였고 현대사회의 기술은 정보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서를 포함한 정보전문가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출처의 안내자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는 컴퓨터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정보기술의 급진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정보의 처리 및 취급방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오게 되어 이로 말미암아 지역 정보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으며 또한 범국가 컴퓨터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 도서관의 역할도 달라져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생활의 여러면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런 도전에 대비할 수 있는 유자격 정보전문가의 배출이 우리 사회에서는

---

\*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부교수

과거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각광 받는 새로운 직종에 취업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 재교육을 받는 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 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정보전문가의 자격문제와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학 및 정보학 교과과정을 검토한 후 정보전문가를 위한 교육경향을 고찰하고, 결론에 사서를 포함한 한국 정보전문직 교육향상에 대해 몇 가지 건의 하고자 한다.

### I. 정보전문가의 자격<sup>2)</sup>

1887년 Melvil Dewey가 콜롬비아대학에서 처음으로 사서교육을 시작한 후 약 백년 동안 도서관의 능률적인 운영의 바탕은 “실질적인 기술”이라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까지 일부 받아 들여지고 있으나 둘이의 이런 철학은 오히려 전문직 사서를 양성하는데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되기도 한다.<sup>3)</sup> 그 이후 1923년 Williamson의 제안, 즉 전문사서는 대학에서 광범위한 일반 교양교육을 받은 후 대학원 과정에서 도서관학을 적어도 1년 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의 사서교육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반면 1924년 미국대학교협회(AAU)에서 사서교육은 대학원 수준에서 실시하되 기간은 2년이어야 한다는 추천은 그동안 근본적으로 무시되고 있었으나<sup>4)</sup> 근래 미국에서는 다시 석사과정을 2년으로 연장시키려는 움직임이 미국도서관협회를 포함한 다른 기관에서도 일어 나고 있으며 또한 6년제 전문직 혹은 자격증 과정(Six-year specialist or certificate programs)이 많이 생기고 있다. 1960년부터 도서관학 대학내에 정보학 전공과정이 설립됨에 따라서 전통적인 도서관학 교육을 받은 사서들이 요즘에는 정보를 다루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배출로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사서직은 점점 감소되는 반면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자동화 및 경영 등의 경험과 교육을 받은 전문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정보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多分野적(multidisciplinary) 교육이 더욱더 필요하게 되고 있다.

도서관의 종류와 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사서의 자격에는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도서관학교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Library Schools)의 회원을 상대로 한 연구조사서에 의하면 응답자의 75%가 여러 전문사서직을 춘사서(para-professional)로 대치할 수 있다고 믿으며 또한 60%가 대학원 도서관학과의 10%가 문을 닫거나 다른 분야와 병합될 것이라고 답했다.<sup>5)</sup> 이와같이 실제 전통적인 사서교육방법으로 사서양성을 주로 맡아 오던 대학원 도서관학과들이 요즘 학생수의 감소에 따라 경영난으로 문을 닫거나 다른 분야와 병합되어 명칭이 달라 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전문직 업무를 비전문직으로 대치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업무를 뚜렷이 구분, 한정짓지 못한데에도 그 원인이 있으므로 우선 전문직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서들은 다양한 정보전문직과 직종의 대두로 도전을 받게 되어 사서직의 자격문제가 도서관계의 관심사로 다시 등장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근래 미국도서관계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도서관학 및 정보학의 새 방향(New Direction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이라는 프로젝트는 미국 문교부가 킹연구소(King Research Inc.)에 의뢰하여 1982년에 시작하여 18개월에 걸쳐 정보전문업에 종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을 규정하는 연구로서<sup>6)</sup>, 이 프로젝트에 의하면 정보전문가의 필요한 자격을 세가지 구성요소인 지식(knowledges), 기술.skills), 태도(attitudes)로 나누어서 규정짓고 있다. 이 세 자격요소는 교육목적의 삼영역(domain)인 인지(cognitive), 心體(psychomotor) 및 정서적(affective) 영역과 일치하는 요소들로서, 이중 태도(즉 소속기관, 직업, 동료 및 이용자들에 대한 태도)에 관한 요소는 초기 사서교육의 선구자인 뉴이의 교육철학에는 없었던 새로운 요소로서, 최근 기계화에 따른 제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교과과목이 많이 생기고 있으며, 이중 특히 이용자연구(user studies)는 학계 및 산업체에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사서를 포함한 정보전문가의 자격을 논하려면 우선 정보전문가의 직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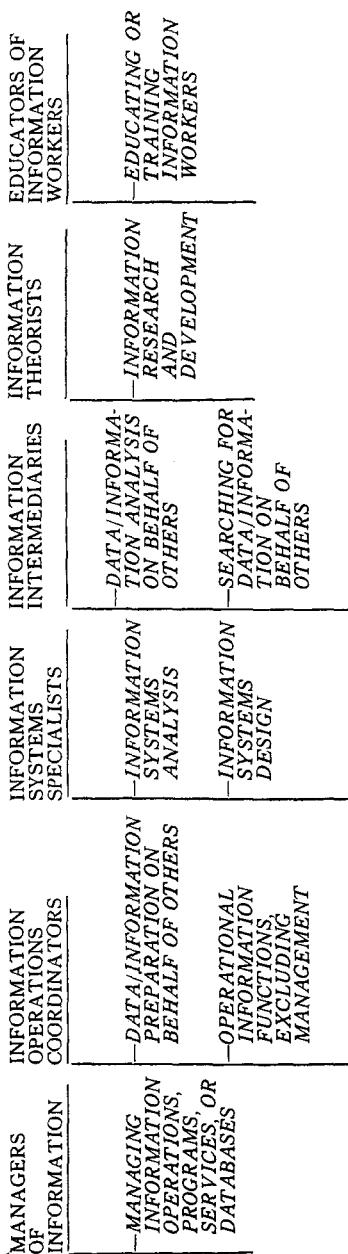


Figure 5. Revised grouping of information functions in relation to generic groups of information professionals.

NUMBER OF PERSONNEL BY PRIMARY INFORMATION FUNCTION						
(See opposite page for explanation of each letter code)						
A Managing information operations, programs, services, or databases	B Data/info. Preparation on behalf of others	C Data/info. Analysis on behalf of others	D Searching for data/info. on behalf of others	E Information Systems Analysis	F Information Systems Design	G Other operational Information Functions excl. management
						H Educating or Training Information Workers
						I Information Research & Development
						J Other Information functions
						1    2    3

Figure 6. Information function descriptions as they appeared on the questionnaire,

직무를 파악해야 한다. 1980년의 한 조사보고서<sup>7)</sup>에 의하면 정보를 다루는 업종만도 약 1,500종에 달한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보전문가를 직무별(work performed), 직장별(work sector, 例, 산업체, 정보계), 그리고 직종 분야(work field, 例, 전산계, 사서)로 표시한 후, 위의 도표에서와 같이 정보전문가를 6개 종류로 그리고 정보기능을 총 10개 종류로 구분했다.<sup>8)</sup> 10개의 정보기능 중의 대부분의 업무는 전통적인 도서관학 교육영역에서 이미 취급되고 있었으나 근래에 와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새로운 정보기술로 인하여 정보의 생산, 축적, 검색 및 관리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정보기능도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도 다양해져 가고 있어서 재래식 도서관과 장서에 대한 개념에서 벗어나 정보의 형태나 소재 장소를 불문하고 정보전문가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찾아서 이용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로 하는 정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전문가의 자격을 규정하고 또한 다양한 정보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규정된 자격에 입각하여 계획해야 하며 아울러 수시로 이를 보충, 개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경향은 피츠버그대학교의 도서관학 및 정보학 대학원에서도 볼 수 있어서, 최근에 시작한 정보학 학사과정에서는 정보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광범위한 일반적 기초 교육을시키고 있으며, 특수분야에 종사할 정보전문가를 위한 정보학 석사과정에서는 정보상담자과정(Information Counselor Track), 정보시스템 전문가과정(Information Systems Specialist Track) 및 정보시스템 디자이너과정(Information Systems Designer Track)을 설치하여 이에 대한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사서교육의 변천과정을 조사한 연구기사에 의하면<sup>9)</sup> 사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 일반참고자료 및 일반서지에 관한 지식과 인사관리 능력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5년간 온라인 검색,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 및 도서관 자동화에 관한 기본적 지식의 필요성이 급증될 것이라고 했다.<sup>10)</sup> 이 연구서의 설문지의 응답자들은 현재 도서관 학교에서는

대부분 전통적 사서자격에 적합한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으나 앞으로 온라인 검색, 감독능력 및 통계학 분야에 관한 기능을 더욱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자료선택, 자료조작 및 참고봉사의 재래식 도서관 기술은 신입사서가 반드시 갖추어야할 자격이지만 이외에도 인간관계와 연구능력이 전보다 더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결과에서 지적되고 있어, 이것이 최근 도서관학 및 정보학 대학의 교과과정에 점차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간관계와 통계에 관한 기능이 전보다 더 중요시 되고 있는 이유는 인간관계는 이용자, 동료 및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하며, 통계에 관한 기능은 기관의 프로그램 계획 및 평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사서에서는 신입사서로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과목으로 전통적인 도서관학과 교과과정 외에 현대 기술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내용의 과목 및 커뮤니케이션, 인지능력(cognitive skill) 그리고 사서직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넓히기 위한 과목들이 부가된 것이 지적되었다.

또 이 연구서에서는 시스템/컴퓨터 전문인, 자료개발 전문가, 주제 참고사서, 홍보담당 전문가 등의 특수전문직 자격에 필요한 과목에는 연구방법, 통계, 컴퓨터 프로그램, 특수참고자료, 도서판사, 경영, 특수주제분야 및 외국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sup>11)</sup> 시스템 및 컴퓨터 전문가는 도서관학 및 정보학 대학에서 이 분야의 특수과정을 이수하거나 또는 전산학과의 과정을 이수하여, 정보를 다루는 여러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대규모 공공도서관 내지 대학도서관에서는 원래 컴퓨터 전문가들이 많이 맡아서 해오던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개발업무에 이제는 자동화 및 프로그래밍 능력 및 도서관 시스템 응용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서들을 점차 참여시키고 있어서 이 분야의 유자격사서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 II. 도서관학과 정보학 교과과정

1960년부터 정보학이 학문의 한 분야로서 인정된 후 정보학 학위과정이 도서관학 대학내에 설치되거나 또는 전산학과와 공동운영 교육과정으로 생

기고 있어 정보학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츠버그대학교 도서관학 및 정보학 대학의 Galvin학장은 사서학에 정보학의 중요성에 관하여 “정보학은 사회학,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 및 전산학 등의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보학의 성질 및 정보 이전과정에 관하여 연구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행동과학적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정보학 연구는 도서관학 분야의 기초이론을 강화하였다.”고 말했다.<sup>12)</sup>

최근에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과 카나다의 주요 대학 및 대학교에서 정보학 과정이 설치된 학교의 수가 87개나 되며<sup>13)</sup>, 이들 학교의 다양한 정보학 과정을 Svenonuius와 Witthus<sup>14)</sup>는 전산학 과정, 도서관학 대학과정, 그리고 상업 및 경영대학과정의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보학 과정은 도서관학 대학<sup>15)</sup>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특히 조지아공대(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오하이오주립대학교(Ohio State University) 그리고 리하이대학(Lehigh University) 등에서는 정보학이 전산학 과정과 통합된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New York University)의 경영학 석사 과정에서는 경영대학과정에서 정보시스템과 컴퓨터 적용에 관한 정보학 과목들을 경영 및 기술적인 면과 병합하여 가르치고 있으며,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경영학 대학(College of Administrative Science, Ohio State University)의 정보시스템의 교과과정은 전산학과 경영학 교수들이 협동하여 가르치며, 그리고 또한 캘리포니아대학교 경영대학원(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는 컴퓨터와 정보시스템과정 등이 있다. 그밖에 상업 및 경영대학 학부과정 내에 기록관리사(Records Manager)를 위한 교육과정이 있는 학교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학의 다분야적(multidisciplinary)인 특성은 정보관리자는 기술관리 능력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문제해결능력 및 정보수집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도서관학 대학에서 이와 같은 다분야적(multidisciplinary) 정보학 교육

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실시된다.<sup>16)</sup> 도서관학과 정보학을 통합하는 방법, 전통적인 도서관학 교과목에 정보학 요소를 가미하여 기존 도서관학 과목의 내용을 최신화하는 방법, 그리고 정보학을 별개의 독립된 새로운 학과 내에서 가르치는 방법이다. 도서관학 교육에서 정보학이 차지하는 비율과 이에 따른 정보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보고서<sup>17)</sup>에 의하면 도서관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식 도서관 업무에 컴퓨터 적용을 주로 취급하는 도서관 자동화, 2) 최근 정보검색 및 축적시스템과 관련된 주제, 즉 초록, 색인, 씨소러스(thesaurus), 단어통제, 검색방법, 제 시스템비교 등의 이론 및 실제를 다루는 정보축적 및 검색, 3)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의 통계적 연구, 수학적 축정 그리고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통계적 샘플링 등에 관한 기술을 다루는 시스템분석, 4) 대화방식 컴퓨터의 정보축적 및 검색에 관한 과목으로 SDC (Systems Development Corp.)의 Orbit데이타뱅크, Lockheed의 Dialog데이타뱅크, BRS(Bibliographic Retrieval Services)데이타뱅크 등과 같은 온라인 정보검색시스템을 다루며 또한 그 시스템에 사용된 질의어와 검색논리를 가르치는 대화방식 컴퓨터 시스템(Interactive Computer System)<sup>18)</sup>, 5) 컴퓨터의 적용을 통해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등이다.

프로그래밍 언어와 방법에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이 도서관 자동화 과목과 다른 점이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도서관학과에서는 컴퓨터 적용과 원칙은 자동화과목에서 다루고 있고 소수의 대학만이 실제적인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학과에서 도서관 자동화와 정보축적 및 검색과목들 중에서 한 개 이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를 과목은 핵심과목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래밍과목도 정보학 전공과목의 기존과목 중의 한 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목은 시스템분석과목으로 조사대상 학교중의 거의 절반 정도가 가르치고 있으며 이외에도 도서관에 필요한 통계 및 수학적 분석능력에 관한 과목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들 조사대상 학교 중 50%가 세 과목 내지 네 과목의 정보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이들 과목은 현재 도서관학 대학에서 가

르치고 있는 정보학 분야의 기본분야들이다.<sup>19)</sup> 피츠버그대학교의 도서관학 및 정보학 대학에서는 정보학이 독립된 과로 되어 있지만, 도서관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정보학 분야가 행정분야(Administration Area), 커뮤니케이션분야(Communication Area), 자원 및 서지분야(Resources and Bibliography) 그리고 기술서비스분야(Technical Services Area)와 더불어 한 분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보학의 사서교육과정에 있어서 중요성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 III. 정보전문가를 위한 교육의 경향

정보전문가를 위한 교육에서 괄목할 만한 변천 및 경향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최근 연구분야에 관심이 특히 고조되고 있어서 교과과정에도 연구방법(research methods)과 같은 과목이 석사과정에 필수과목으로 포함된 학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도서관 및 정보센터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해결해 보려는 노력과 이용자연구를 통해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 대학 및 특수도서관 사서들도 연구분야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협회 등의 단체에서도 어떤 특수 분야의 워크샵이나 회의 등을 종종 개최하여 당면한 문제를 공동연구를 통해 검토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2. 새로운 학위과정이 형성되어, 이미 여러 도서관학 대학에서 정보학 석사 뿐만 아니라 학사과정도 생기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학교의 명칭에도 정보학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석사학위과정도 2년으로 연장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6년 과정의 전문인 혹은 자격증 과정과 박사학위를 주는 학교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데이터의 입력 및 출력 등의 컴퓨터를 조작하는 일 등의 비전문직(전문사서의 보조역할을 하는) 교육과정도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3. 종신 교육과정의 설치와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급변하는 기술 및 사회발전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사서를 비롯한 정보전문인들을 위한 종신 교육과정이 많이 생기고 있으며 또한 전문인들의 직종 및 교육배경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정보처리를 위한 컴퓨터 기술, 온라인 검색이나 마이크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과 같은 과정뿐만 아니라 경영자를 위한 과정, 미디어 전문가를 위한 과정, 특수분야의 정보전문가를 위한 학위 또는 수련과정 등에 직장인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다년 간 직장에 종사한 사서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와 전문자격증 과정이나 박사학위과정에서 학위를 하는 학생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학 대학은 정보전문가의 교육을 위해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신교육은 학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 및 개인기관들의 공동협력도 필요하다. 이의 한 방안으로 도서관학 및 정보학 교육과정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종신사서교육 네트워크 및 교환(Continuing Library Education Network and Exchange (CLENE))프로그램이 도서관 및 정보학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의 후원으로 설립되었다.<sup>20)</sup>

4. 신설과목이 많이 설치되는 반면 필수과목의 수가 감소되고 있다. 도서관학 교과과정에서 정보학 과목들이 중요 분야로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교과과정에서 정보학 과목들의 비율도 다른 과목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필요한 과목들이 많이 신설되고 있으며 특히 근래에 와서 정보학 과목 중에서는 컴퓨터 이용의 증대로 인하여 정보시스템을 설계하는데 기계적인 면보다 인간적인 면의 중요성에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서 시스템 설계에서 인간적 요소 및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목(Human Factors in System Design ; Man-machine Studies ; Man-machine Interface ; Ergonomics 등) 등이 많이 생기고 있다. 또한 이용자연구 등 인간의 행동에 대한 연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서 인간과 정보와의 관계를 다루는 과목(例, Behavioral Issues in Information Science ;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 Behavioral Models in Information Science ;

Diagnostics 등)이 많이 개설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목이 많이 신설되고 있는 것은 정보를 다루는 직종이 다양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격자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특수분야의 과목을 많이 택하여 폭넓은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필수과목의 수를 줄이고 있는 경향이다. 이외에도 실제 도서관 운영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도서관 자동화와 관련된 과목이 많이 개설되고 있으며 또한 외국 여러 나라의 도서관학 및 정보학을 비교하는 비교 도서관학 과목(International Librarianship ; Comparative Librarianship ; World Librarianship ; Librarianship in Developing Countries) 등이 여러 학교에 개설되고 있다.

5. 교수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교수법에서 달라지고 있다. 교수법에서 달라지고 있는 현상은 새로운 미디어(new media)를 강의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학생들에게 또한 실제적인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 그 지방의 미디어센터 등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시스템 설계등의 정보학과목에서는 학생들이 팀을 짜서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주어서 연구결과를 강의시간에 발표 및 토론을 하게 하여 학생들을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또한 일선에서 일하는 정보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강의시간에 또는 워크샵, 특강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실무지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특히 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도서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보다 실습과목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이를 필수과목으로 택하게 하는 학교도 많다.

6. 정보학 분야 교수들의 인접분야 전공과목이 다양해져 가고 있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피츠버그대학교의 도서관학 및 정보학 대학의 교수들의 전공분야는 도서관학, 정보학, 전자계산학, 공학, 수학, 통계학, 화학, 심리학, 언어학, 사회학, 경제학 철학 등 다양하다.

7. 전문직을 보조하는 보조직원(support staff)을 위한 교육과정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격도 정보기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양하게 변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조직급이 세분화되고 있다.

8. 도서관학 및 정보학 대학의 교과과정 및 학위과정 개혁, 교수채용 및

도서관 운영 등의 행정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 가고 있다.

#### N. 결론 및 제언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요즘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의 급진적인 보급으로 산업체에서 정보를 다루는 직종이 다양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 사서를 포함하여 정보를 다루는 전문직에 대한 일반사회의 인식이 부족한 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교과과정은 전문분야의 교수들의 부족으로 정보시대가 필요로 하는 각 분야의 전문인을 교육시키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

이 논문에서 정보전문가를 양성하는 미국의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과 정보전문가의 자격을 검토해 본 것은 이 분야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참조하여 우리도 다양해져 가고 있는 정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개선 및 보완점을 모색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이에 대해 본인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전문사서교육을 위해 다음 몇 가지를 건의하고 싶다.

정보를 취급하는 다양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정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 교과과정의 폭을 넓혀 정보전문가로서 필요한 다분야적(multidisciplinary) 교과과정을 계획해야 하며, 둘째, 시대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위해 교과과정을 수시로 개정 및 보완해 나가야 하고, 교수진도 관련된 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세째, 전문분야의 학위 및 자격증 과정은 학부의 여러 분야에서 전공한 학생 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는 직장인들의 관심도 끌 수 있는 다양한 대학원 과정을 마련하여야 하고, 정보를 다루는 보조직을 위한 교육과정은 학부에서 기초교양과목을 택한 후 인접학문(정보학, 전산학 등)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네째, 대학 및 전문기관에 종신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정보전문가를 위한 다양한 교과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보를 다루는 여러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이 이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섯째, 이론과 실무를 결부시킨 산교육을 시키기 위해 현직에 종사하는 정보전문가를 직접

초빙하여 이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하고 또한 새로운 미디어의 이용 및 현장답사를 통해 실무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고 관련된 기관과 협력하여 실습을 필수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실습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하여야 하며, 여섯째, 정보를 다루는 제 기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관련과목, 예를 들면, 컴퓨터, 회계, 경영, 경영시스템, 통계, 연구방법 등을 동 대학이나 타 대학의 도서관학 및 정보학 이외의 타 학과에서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곱째, 전문직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분야의 국내 및 국제학회의 끊임없는 노력과 이들의 활동에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협력이 필요하며, 여덟째, 정보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나 교과과정 개선을 위해 산업체 및 국가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과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 引 用 文 獻

- 1) S. Norman Feingold, "Information Industry Careers in 2000: An Interview with S. Norman Feingold." Tom Surprenant. *Library Hi Tech*, Winter 1983, p. 5.
- 2) 본고에서 정보전문가란 사서를 포함한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전문가를 의미 한다.
- 3) John Budd, "The Education of Academic Librarian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45 (January 1984), 15.
- 4) *Ibid.*, p. 16.
- 5) Martha Boaz, "The Futur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18 (4):315-323 (Spring 1978)
- 6) Jose-Marie Griffiths, "Our Competencies Defined: A Program Report and Sampling." *American Libraries*. 15 (January 1984), 43-45.  
참고: 이 기사에 실린 자격 항목들은 특수 도서관의 원로급 참고사서 자격에 관한 목록이다.
- 7) Anthony Debons et al. *The Information Professional: Survey of an Emerging Field*. New York: Marcel Dekker, 1981.
- 8) *Ibid.*, p. 37.
- 9) Nathan M. Smith, Maurice P. Marchant and Laura F. Nielson, "Education for Public and Academic Librarians: A View from the Top." *Journal of*

- Education for Librarianship*, 24 (Spring 1984), 233-245.
- 10) *Ibid.*, p. 233.
  - 11) *Ibid.*, p. 238.
  - 12) Thomas J. Galvin, "The Significance of Information Science for the Theory and Practice of Librarianship." Unpublished paper presented at IFLA General Conference, Munich, 1983.
  - 13) Debons et al., *Op. cit.*, p. 257.
  - 14) Elaine Svenonius and Rutherford Witthus, "Information Science as a Profession." White Plains, N.Y.: Knowledge Industry Publications, 1981.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16:291-316.
  - 15) 최근에는 도서관학 및 정보학 대학 혹은 정보경영대학 등으로 학교 명칭을 바꾸는 경향이 있음.
  - 16) Robert M. Hayes. "The Core Curriculum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IFLA)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ugust 11-15 1980.
  - 17) Howard Fosdick, "Library Education in Information Science: Present Trends." *Special Libraries*, 69 (3):101-108 (March 1978).
  - 18) 대화방식 컴퓨터 시스템과 같은 과목을 도서관학과에서 많이 가르치게 된 것은 1970년 이후 도서관에서 SDC나 Lockheed와 같은 상용 온라인 검색시스템(Online Retrieval Systems)과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나 RLIN(Research Libraries Information Network) 등의 서지네트워크(bibliographic Network)의 이용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이용자(end user)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서 이러한 과목 역시 사서직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필수적인 자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다.
  - 19) *Ibid.*, p. 104-105.
  - 20) Galvin, *Op. Cit.*, p. 276.

## Recent Trends in Education and Training for Information Professionals in the U.S. and Their Impact on Library Education Programs in Korea

Soon-chung Hahn

### Abstract

This short survey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curricula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in the U.S. in order to implement them for our professional education in the field in Korea so as to produce qualified and competent graduates.

Some of the prevailing trends in education and training for information professionals in the U.S. are as follows: 1. Library schools tend to incorporate information science into library school curricula to reflect their emphasis on this area, and attempt to develop close ties with all segments of the information industry; 2. Library schools actively participate in cooperative research with other agencies to explore ways of solving problems; 3. There is a diversity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o meet the needs of a wide variety of information professionals, with library school faculty members being drawn from a wide range of scholarly disciplines; 4. New methods of teaching are being developed to support research and instructional activities; 5.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the student body, now given a strong voice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library school.